

# “5월에 가볼만한 방방곡곡 ‘신상’ 여행지들 추천합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5월은 신나게 뛰어놀기에 좋다. 가정의달이기도 하다. 늘 가던 여행지보다는 새로 문을 연 관광지도 떠나는 것도 좋겠다. 한국관광공사가 ‘신상’ 여행지를 주제로 5월 가볼 만한 곳들을 골랐다.

### ◇지하철역, 예술이 되다...복사평역 지하예술정원

서울지하철 6호선 복사평역(용산구청)이 올해 3월, 서울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지하 5층 승강장에 내리면서부터 지상으로 올라가기까지 ‘깊이’의 동굴-순간의 연대기 ‘복사평역기’ ‘술 썰러리’ 등 작품을 연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저 지나치면 서 보기에는 아깝다. 작품을 천천히 감상하기를 권한다.

지하 4층에서 지하 1층까지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을 활용해 만든 ‘댄스 오브 라이트’는 복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의 걸작이라고 할 만하다. 복사평역에서 나오면 이태원으로 이어진다. 이태원 거리는 다양한 인종이 빚어내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찬란한 유물을 만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용산가족공원을 둘러보고 이촌한강공원에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즐기며 여행을 마무리하자.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02-2199-7252

### ◇개항장 인천의 랜드마크...대불호텔의 화려한 변신

1978년 철거된 대불호텔이 40년 만인 지난 2018년 4월, 중구생활사 전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불호텔 모습을 재현해 꾸민 이곳은 대불호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1관, 1960~1970년대 인천 중구의 생활사를 체험할 수 있는 2관으로 나뉘었다.

대불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다. 개업 후 10여 년 동안 인천을 대표하던 대불호텔이 폐업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이다. 하지만 폐업한 호텔을 인수해 문을 연 ‘중화루’는 같은 이유로 큰 성공을 거뒀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대불호텔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는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개항장 인천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개항장역사문화거리리 초입에 자리한 중구생활사전시관을 시작으로 나란히 자리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도 함께 돌아보기 좋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 건축물을 모아놓은 월미공원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 공원인 송도센트럴파크가 인천의 봄을 만끽하는 대표 여행지라면, 신포국제시장의 닭강정과 소래포구의 제철 해산물은 짝꿍한 입맛 잡아줄 인천의 대표 먹거리다.

### 인천 중구생활사전시관 032-766-2202

### ◇평화 관광의 뉴페이스...고성 통일전망타워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면서 평화 관광지에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말 개관한 고성통일전망타워는 평화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1984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종전 통일전망대 옆에 들어선 고성통일전망타워는 높이 34m에 DMZ의 ‘D’자를 형상화했다.

1층은 이산가족 자료사진을 전시하며 야외전망대를 갖췄다. 2층에는 전원이 통유리라 북녘땅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전망교육실과 남북 관련 흥미로운 전시로 채운 통일홍보관이 있다. 건물 꼭대기에 자리한 3층 전망대에 오르면 상공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는 기분이 든다.

고성통일전망타워 주차장에 위치한 6·25 전쟁 체험전시관과 인근의 DMZ박물관까지 함께 돌아보면 좋다. 때묻지 않은 고성의 자연경관을 만끽하고 싶다면, 고성8경이자 석호인 화진포와 송지호로 향하자. 고성 대표 관광지는 대형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고성으로 떠나는 여행이 또다른 기부임을 기억하자. 고성군청 관광문화과 033-680-3361~3



강진 조만간 마당극

방사 대중가요 ‘물고 넘는 박달재’로 유명한 박달재, 호반과 어우러진 산촌을 둘러보는 청풍호자락길 등을 연계해 여행하면 좋다. 청풍호 반케이블가 043-643-7301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043-261-1400

### ◇‘조만간’으로 신비람 난 강진 시의제자짓거리...남 강진군 강진을

전남 강진에 신비람이 불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귀양와서 처음 머무른 사의재 주변에 제자거리가 조성된 데 이어 ‘조만간프로젝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조선을 만난 시간’의 주인공인 조만간은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재현하는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강진군 아미유어 배우들이 신나는 마당극을 공연한다. 주모가 다산에게 차려주던 아육국을 비롯한 특색 있는 먹거리, 초의선사와 메롱 무당, 건달 형제 등 흥미진진한 캐릭터가 보여주는 조선 시대 재현 코너가 마련됐다.

주말마다 펼쳐지는 조만간프로젝트 중 조선 시대 재현 코너는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된다. 마당극은 하루 2~3회(오전 11시, 오후 1시 혹은 3시) 공연된다. 공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조만간프로젝트를 기획한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사의제자거리에서 가까운 곳에 김영랑 시인의 생가가 있다. 감성 넘치는 서정시의 배경이 된 영랑생가를 둘러보고, 생가 뒤에 조성된 세계모란공원을 산책하면 나도 모르게 시심이 암골은 아경이, 정복동 토성은 노을이 아름답다.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국보 41호)은 변화가 한가운데 위치해 시기 여행자를 겸할 수 있다.

갈대 군락지를 감상하고 가우도에 서 시원한 쫄떡을 즐겨보자. 봄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강진군청 관광과 061-430-3114

### ◇신나게 놀면서 배운다...경에코릴라

경북 문경에 새로 문을 연 문경 에코릴라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이색 여행지다. 종전에 있던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온오픈세트장을 통합하고, 에코타운과 지이언트포레스트 시설 등을 더해 복합 생태문화 테마파크로 업그레이드했다. 에코타운은 백두대간을 주제로 꾸민 에코서울, 특수촬영·영상 제작을 체험하는 에코스튜디오, 첨단 농업기술을 보여주는 에코팜 등 흥미로운 전시·체험이 가득하다.

온전히 자신이 주인공인 영상물을 만들어보는 에코스튜디오가 눈길을 끈다. 폐광 지역에 세워진 문경석탄박물관, 수많은 역사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한 가온오픈세트장까지 볼거리가 다양해 한나절을 돌아다녀도 지루하지 않다. 문경에코릴라를 나서면 가온역이 지척이다. 이제 기차는 서지 않지만 소박한 카페로 변신한 간이역에 늘 향긋한 커피 내음이 흐른다. 이곳부터 진남역까지 폐철로를 따라 문경철로자전거가 이어진다. 진남역 인근에는 고모산성과 문경오미자테마터널이 있어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문경 에코릴라 054-572-6854

뉴스스



DMZ의 ‘D’자를 형상화한 고성통일전망타워



인천 대불호텔 자리에 개관한 중구생활사전시관

###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함...제천 청풍호반케이블가

‘육지 속 바다’라 불리는 청풍호에 지난 3월부터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과 호수를 동시에 조망하는 케이블카다. 청풍면 물태리에서 2.3km 떨어진 비봉산 정상까지 9분 만에 올라간다. 일반 캐빈 33대와 바디가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 10대가 시간당 1500명을 실어 나른다. 탑승 인원은 최대 10명. 상부 승차장인 비봉산역은 청풍호관광노레일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 케이블카로 내려오는 패키지는 모노레일 승차장에서 판매한다.

탑승권을 소지하고 의림지역사박물관에 가면 관람료가 면제되고 제천시 관내 가맹점 4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지역 화폐 ‘모아’도 받을 수 있다. 청풍호가 생기면서 수몰된 마을의 주요 문화재를 이진·복원한 청풍문화재단지, 금수산 자락에 들어앉은 천년 고찰 정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